

# 내 월급은 4만원입니다.

## I. 합작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의 호소

지난 6월 3일 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인산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한국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들은 본 상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 1) 탈출경위

이들 인도 산업기술연수생은 천안 전방(주)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가지 회사의 열악한 환경에 견디다 못해 지난 6월3일 새벽 2시 모두가 잠이 든 틈을 타 회사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4명으로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J.J. BATT (남 21세, 인도), P.P. PARCY (남 21세, 인도),  
J.R. SHAH (남 21세, 인도), B.K. DESA (남 21세, 인도)

### 2)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이들 연수생들은 (주) 전방과 합자 관계에 있는 TAI 전방의 모집 공고를 보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연수생의 명목은 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다 선진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파견하는 데 전방의 경우는 이들이 인도 현지에서 근무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을 하고 해도 하루, 이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도 TAI 전방에서 근무하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형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합작투자 회사를 이용한 인력 수출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6년 3월 7일 입국한 이들은 한국에 22명이 왔으나 8명은 다른 회사로 갔고 14명이 천안전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방은 천안, 광주 등지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올 때 80만원 정도의 돈을 예치금으로 하여 그 부모가 보증을 서고 만일 그들이 1년 비자가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돈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브로커 이름은 KAMLESH SANTHANI 입니다.



증언하는 4인의 연수생

### 3) 근무시간 및 임금

이들의 회사 규칙에 보면 오전 7시부터~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저녁 11시, 저녁11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도합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 합니다. 임금은 12시간 기준으로 하여 한달 4만원이었습니다. 16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달 받는 평균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2만원은 본국에 보내고 나머지 3만원을 가지고 한달을 생활해야 했으며, 그나마 3만원도 신탁 통장에 임금을 해주므로 돈이 필요한 회사에 이야기 해서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한달 월급 4만원,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적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또한 하루 작업량이 16시간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한국에 오면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한달에 4만원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한달 4만원은 인도에서도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이들이 인도에서 일할 때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4) 휴일, 외출 외박

이들은 휴일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믿지 못했지만 회사에서의 휴일은 한달에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5월에는 휴일이 없었으며, 6월 1일이나 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경일에는 “너희는 한국사람이 아니니 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사람이 모두 쉬고 있는 그때도 이들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외출 외박은 물론이고 회사내에서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한국인에게 절대로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 사람의 월급이 얼마인지 묻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 인근에는 대중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 해도 갈수가 없고 값은 오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 5) 음식

하루 16시간 쉼 일하면서 그들은 젊은 나이에 왕성한 식욕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음식은 언제나 부족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지만 음식이 충분치 않아 늘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번은 이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자 겨우 1인당 바나나 1개 썬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때는 특별 간식이 담긴기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닭은 고작 2마리로 14명이 한조각씩 집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SHAH씨가 며칠을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의사 일을 하라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동료들이 화가 나서 병원에 데려 가야 한다고 항의하자 겨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때 의사는 영양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다. 배가 고파서 한국에 왔지만 이들은 인도에서 보다 더 배가 고파야 했습니다.

##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연수생 중안〉

관리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한국의 인사말을 혹시 있어 버리면 매우 화를 냈으며 관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팔굽혀 펴기, 계단 뛰어오르기 등의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군대의 병사외도 같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비디오테입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리자가 매우 화를 내면서 저희 연수생 모두의 짐과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모두 도둑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끊어 오르는 화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만일 1년 내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면 3만루피스(80만원 상당)의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관리자에게 대들었다가는 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찾지 못하자 우리 14명 전원의 월급을 조금씩 돈을 매어 비디오 테이프의 값 2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 나도 살고 싶습니다. —

한국에서 일하는 보통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달에 받는 월급이 8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4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방과 같은 회사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들 중 3사람은 조장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을 결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차 회견은 더 이상 타이 전방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 II.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무리한 연행

— 방글라데시인 아니스(남 28세) 증언

저는 사회공단에 있는 대양 공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주야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째 되는 지난 1월 30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저는 야간 근무를 하고 회사 2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국 사람이 회사에 들이 닦았습니다. 1층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잠취하는 것도 모르고 저는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당탕하며 출입국 직원들이 제가 자고 있던 방에도 들이닥쳐 태린도 식으로 때리며 어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면 큰 일이 나겠구나 하면서 저도 의식하지 못한채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이때 제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이나 하듯이 같이 불잡혔던 친구 한 사람을 병간호를 위하여 풀어 주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의 말로는 지금까지 병원이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부상당한 저에게만 부담 지우려 하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회사에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지휘 책임자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남인했던 문화춘 서울 목동출입국계장이었다.**



기브스한 아니스(남: 28세)의 두 다리

## III.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누가 도와 주어야 합니까?

이렇듯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담소로 찾아 왔을 때 그들이 체류기간을 넘쳤다고 해서 모르는체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외국인노동자의 장담이 없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중지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와 성소 탄압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 구속된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을 석방하라!
- 연행된 내팔인 부부에 대하여 인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 팀업 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 319-8955      팩스 : 776-2761